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오경숙, 김영주, 민희주, 정지윤
국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e-mail: geb1568@daum.net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s participation in parenting and parenting stress of fathers

Kyeong-Sook Oh, Yeoung-Ju Kim, Hee-Ju Min, Ji-Yun J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 양육과정 중 경험하는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알아보고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아버지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버지들은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사회정서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기성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다양하게 겪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분석하여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참여 유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 참여, 부모-자녀 상호작용

1.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급격한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취업증가는 양육 및 가사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요구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요구와 더불어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 대한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사회적 지원도 늘어나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적으로도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약 2만9천명이며 1년 사이 2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는 생활지도, 가사 활동, 여가활동, 인지 성취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녀와 함께 놀이 및 운동을 하거나 유아 돌보기, 식사 예절 가르치기, 가사일하기 등 가정에서의

활동은 물론 사회생활에 대한 직, 간접적 접촉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포함하여 신체적, 물리적 상호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행동의 양적 정도를 의미한다[2].

부모역할은 유아의 성장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가치관이나 자녀관, 성격, 생활방식, 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학습된 양육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3]. 특히,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는 자녀의 유아의 인지학습, 성취동기, 사회성, 성 역할 등의 제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4]. 이에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결과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양육에 대해 공동의 과제로 부각하면서 아버지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치관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아버지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며, 아버지의 역할과 인식 변화의 사회적 요구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5].

부모가 지각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6]를 볼 때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주목하여 이들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와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양육참여 정도와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바람직한 참여를 유도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의 아버지 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12)

변인	n	%	변인	n	%
부 연령			전문대졸이하	40	35.7
만30~35세	31	27.7	부 대졸	34	30.4
만36~40세	51	45.5	부 학력 대학원이상	38	33.9
만41세이상	30	26.9	전체	112	100.0
전체	112	100.0			
자녀 수			맞벌이	79	70.5
1명	26	23.2	이 외벌이	33	29.5
2명	68	60.7	여부		
3명이상	18	16.1	전체	112	100.0
전체	112	100.0			

2.2 연구도구

2.2.1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를 김신정[7]이 이용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적응과 관련한 정도를 의미하는 ‘부모 역할 적응 스트레스 10문항’,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스트레스 10문항’, 부모가 통제하기 힘든 자녀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의 행동 스트레스 10문항’으로 3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높을수록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15이었고, 하위요인 중 ‘부모의 역할적응’은 .831,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901, ‘자녀의 행동’은 .838이었다.

2.2.2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척도는 최혜순과 이미현[8]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개발한 양육참여 척도(A father involvement Scales for fathers of young children)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양육참여척도는 아버지가 평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평정하는 척도로, 5요인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96이었고, 하위요인 중 ‘자기성장’은 .816, ‘놀이·문화지원’은 .848, ‘사회·정서지원’은 .786, ‘교육지원’은 .764, ‘공동양육’은 .701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어

린이집 원장님과 담임교사를 통해 영·유아의 아버지에게 배부되었고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본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회수된 115부의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 3부를 제외한 112부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계수,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아버지의 참여수준과 양육스트레스 수준

[표 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수준 (N=112)

변인	점수범위 (최저-최고)		M	SD
아버지의 양육 참여	자기성장	1.00 4.20	2.73	.71
	놀이문화지원	1.00 5.00	3.61	.78
	사회정서지원	1.25 5.00	3.75	.68
	교육지원	1.33 5.00	3.57	.77
	공동양육	1.33 5.00	3.71	.74
	전체	1.00 5.00	4.13	.68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적응	1.10 4.60	2.63	.60
	부모-자녀 상호작용	1.00 3.90	3.90	.63
	전체	1.00 4.60	4.20	.58

[표 2]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평균 4.13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중 ‘사회정서지원(M=3.7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동양육(M=3.71)’, ‘놀이문화지원(M=3.61)’, ‘교육지원(M=3.57)’, ‘자기성장(M=2.73)’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즉, 아버지들은 양육참여를 잘하고 있고, 양육참여중 ‘사회정서지원’과 ‘공동양육’에 높은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4.23점으로 보편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변인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높은 점수(M=3.90, SD=.63)가 나타났고 ‘부모역할적응’에서 가장 낮은 점수(M=2.63, SD=.60)를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들이 부모역할 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높으며,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 간의 관계 (N=112)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적응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의 행동	스트레스 전체
자기성장	-.55	-.323**	-.282**	-.273**
놀이·문화지원	.000	-.368***	-.274**	-.269**
사회·정서지원	-.113	-.374***	-.357***	-.349***
교육지원	-.006	-.344***	-.211*	-.236*
공동양육	-.07	-.462***	-.317***	-.366***
양육참여전체	-.066	-.466***	-.367***	-.374***

*p<.05, **p<.01, ***p<.001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전체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전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374, p<.001). 양육참여 하위변인중 공동양육(r=-.366, p<.001)이 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정서지원(r=-.349, p<.001)’, 자기성장(r=-.273, p<.01)’, 놀이·문화지원(r=-.269, p<.01)’, 교육지원(r=-.236, p<.05)’ 순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버지들은 양육참여를 많이할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모든 하위변인은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중 부모-자녀 상호작용(r=-.466, p<.001)과 자녀의 행동(r=-.367,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양육스트레스의 부모역할적응 변인에서는 양육참여의 모든변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은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자녀의 행동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만 부모역할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양육참여를 잘하고 있고, 자녀의 '사회정서지원'과 '공동양육'에 높은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들이 부모역할 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높으며,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들은 양육참여를 많이할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하게 아버지들은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자녀의 행동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만 부모역할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직접적인 참여도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특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버지가 바람직한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적 가치가 있음에도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후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유아의 아버지를 모집단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향후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대상의 선정이 요구된다.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자녀맞돌봄 문화확산으로 남성육아휴직, 꾸준한 증가추세. 2022.4.26. 배포.
- [2] 박은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년.
- [3] 고가연, 유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인식에 관한 내용 분석. 2015년.
- [4] 권정숙,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9년.
- [5] 이재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2018년.
- [6] Crnic, K. A., Gaze, C., & Hoffman, C.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Vol. 14 No.2, pp. 117-132. 2005.
- [7] 김신정,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2014년.
- [8] 최혜순,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15년.